



四十四

백가흠 지음

**우리세대 존재론적 성찰 모색**

폭력성의 심연에서 끊임없이 진실을 탐문하는 글쓰기를 해왔던 백가흠 작가의 네 번째 소설집 '四十四(사십사)'가 나왔다. 등단 15년차, 사십대에 이른 작가의 자기 성찰이 돋보이는 이번 작품집에는 지난 2011년부터 발표해온 아홉 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단아하고 정밀한 문체로 알려진 작가의 글쓰기는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각각의 작품들은 우리 세대의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존재론적 성찰을 모색한다. 작가는 불편한 진실에 가닿는 고통스러운 일, 외면하고 싶은 모습의 숙절없는 경험 등 진실 발견을 위한 특유의 고행을 서사화한다. 삼십대에서 사십대라는 생애 전환에 다다른 작가는 성인식을 치르듯 자기 세대에 전격적 극대화된 자기 연민을 세대의 연민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둔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공기의 연금술

토마스 헤이거 지음

**질소비료 만든 두 과학자 이야기**

질소는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원소 가운데 하나다. 식량 생산에 필수적인 비료에서부터 많은 목숨을 앗아간 폭탄까지, 생명과 죽음에 관여했다.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한 질소는 대기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의학협회저널 특과원을 지낸 토마스 헤이거의 '공기의 연금술'은 질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해 비료를 만드는 데 기여했던 두 과학자 프리츠 하버와 카를 보슈에 관한 이야기다.

대기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던 시대, 하버와 보슈는 오랜 연구 끝에 질소비료를 만드는 법을 발견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질소가 독가스나 폭탄제조에 사용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하버는 암모니아 합성법으로 노벨화학상을 받지만 동시에 독가스전 전범으로 낙인찍힌다. 마찬가지로 보슈는 평생 질소 연구에 전념했으나,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한 과학이 정치와 권력에 의해 오용되는 것도 지켜봐야 했다.

〈반디·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사랑은 '내 안의 타자'를 발견하는 행위

**사랑이란 무엇인가**

주창윤 지음



"사랑에는 원본이 없다.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 공유되는 고유한 체험이다.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찾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다. 사랑은 '일 만개의 직소퍼즐' 같다. 수많은 퍼즐 조각들은 사랑을 개별적으로 구성하며, 그것들을 맞추어갈 때 어렵듯이 사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롤로그 중에서)

사랑, 알 수 없다. 아니 정답이 없다. 그러나 사실 누구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한다. 생은 사랑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고, 주고, 나누면서 산다.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사랑이다. 인식하든 못하든 그것은 변함없는 인생의 진리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랑을 포기한 이들이 많다. 취업이 안 돼 연애를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청춘남녀들이



사랑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였다. 사진은 루카스 크라나흐의 '아담과 이브'.

부지기수다. 이들에게 사랑은 사치처럼 느껴진다. 비단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만의 얘기는 아니다. 사랑을

포기한 이들이 의외로 많은 걸 보면, (사랑은) 마치 수학의 미적분처럼 풀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인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 "사랑은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개인의 열망이 잘 드러나는 영역"이며 "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시인이자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주창윤 교수가 펴낸 '사랑이란 무엇인가'는 사랑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그 본질을 다룬다. 저자는 다양한 사랑의 양식 가운데 남녀의 사랑에 집중한다. 신화와 전설 등을 매개로 문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드러난 사랑을 파고든다.

사실, 사랑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한 테마였다. 예술가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소재로, 학자들에게는 연구 대상으로, 종교인들에게는 실천해야 할 행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작금의 사랑은 '썸타기'와 '디지털 사랑'으로 대변될 만큼 방식이 변했다.

'썸타기'는 사랑을 할 듯, 말 듯, 상대의 '간을 본다'는 의미다. '썸' 없는 방송도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미디어 매체는 탐색 과정에 집중한다. 여기에 인터넷의 확산은 네트워크의 확장을 넘어 태만한 사랑의 영역에까지 간섭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양상은 상호작용과는 무관한 비개인화를 부채질한다. '연결의 시대'가 낳은 풍속도로, 사랑의 본질이 '관계'에서 '연결'로 이동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사람들은 의외로 나머지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하듯이, 언제든 내가

원할 때면 끊거나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다.

저자는 사랑을 발견이라고 한다. '미켈란젤로의 발견'을 예로 들면서 "사랑의 대상은 나에게 발견되기 이전까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면서도 "평범한 대리석에서 특별함을 찾아내는 미켈란젤로의 작업"과 같다고 강조한다. 마치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시구절과 같은 의미다.

또한 사랑은 '내 안의 타자'를 발견하는 행위이다. 우리말에 '눈부처'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의 눈동자에 비친 내 형상을 말한다. 저자는 "눈부처는 타자를 나처럼 끄집어 보듬어 주고 사랑하는 사유와 실천이다. 내 안에 비추어진 너, 내 안에 비추어진 나에게는 '경계'가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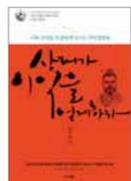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음판에 새겨야 할 명제가 있다.

저자는 사랑을 연역이 아니라 귀납이며, 사랑에는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랑의 힘은 구체적일 때 나온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추상이며,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추상화된 대상과 관심을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 구체적인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형식은 그 둘에 의해서 변화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이 변화하지 않는 구체성은 구체성이 아니다."

〈마음의 숲·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3천년 인문고전의 숲에서 길러낸 부국강병학



상대가 이익을...

신동준 지음

혼란의 시대, 난세를 부채질하는 것은 주인의식의 부재다. 정쟁을 일삼으며 밥그릇 쟁기기에 여념이 없는 정치인들에게선 진정한 주인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심에 지도자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고전을 바탕으로 나와 조직을 부강하게 하는

'주인경영법'이 중요한 까닭이다.

전직 기자출신이자 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을 지낸 신동준 박사가 펴낸 '상대가 이익을 얻게 하라' 관자처럼'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 관중의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다. 제자백가는 인간학에 관한 한 서양보다 훨씬 연원이 오래되었고, 사상적으로도 그 폭이 넓고 깊다. 이 제자백가의 호시가 바로 관중이다. 일반에게 관중은 '관포지교'(管鮑之交) 고사성어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관중은 전국시대 법가, 유가, 도가, 병가 등 제자백가들의 학설을 집대성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인간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지략을 '관자'에 담았다. 3000년 인문고전의 숲에

서 길어올린 지혜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의 많은 정치인들과 CEO들이 '관자'를 탐독하고 있을 만큼 책에는 실용주의적 부국강병 사상이 집약되어 있다.

"무릇 목민자(牧民者)인 군주는 다음 네 가지 사랑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백성의 고통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은덕을 베풀어 그들을 감싸주어야 합니다. 셋째, 형벌을 남용해 백성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무조건 무력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면 족히 치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다스북스·2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괴물은 우리 바깥의 적이 아니라 '현대사회'



괴물과 함께 살기

정성훈 지음

지난 2006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이 개봉되면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사람들은 "괴물은 미국이다", "괴물은 신자유주의다", "괴물은 기득권층이다" 등 영화 속 괴물을 투쟁과 극복의 대상으로 해석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괴물'은 무엇인

가. 폭력의 강도나 야만성이 인간이길 포기한 존재인가. 철학박사 정성훈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루만까지 철학의 거장들이 들려주는 '괴물' 이야기 '괴물과 함께 살기'를 펴냈다.

책 속에서 저자는 '괴물'을 '현대사회'라고 정의한다. 우리 바깥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빌붙어 사는 주인이자 우리와 공생하며,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회를 괴물로 보고 있다.

책은 개인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 만든 사회가 도리어 개인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역설적인 문제를 서양지성사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려 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미지북스·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CBS**

**JOY4U**

**24시간 크리스천 음악방송**

CBS의 새로운 음악채널 **JOY4U**

**9월 14일 개국!**

24시간 크리스천 음악방송 JOY4U는 기독교 문화의 부흥과 좋은 기독교 음악 콘텐츠 제공을 위해 CBS 61년 방송 역량을 모아 새롭게 만드는 크리스천음악 전문 방송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CCM, 경배와 찬양, 정통 가스펠, 교회음악, 성가, 목상음악 등 기독교 음악의 모든 장르를 CBS의 인터넷 라디오인 (레인보우)를 통해서 모바일 스마트폰과 PC에서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RAINBOW**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듣기!**

**모바일 레인보우 라디오**

표준FM과 음악FM, JOY4U 방송을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드로이드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CBS 레인보우 검색  
애플 : iOS 앱스토어에서 CBS 레인보우 검색

**PC 위젯으로 듣기!**

**PC용 레인보우 RAINBOW**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에 레인보우 위젯을 설치하면 전세계 어디에서나 CBS 라디오와 JOY4U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연신청과 녹음은 물론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다운 받고 설치하는 곳  
<http://rainbow.cbs.co.kr/Rainbow>

**CBS**